

# 잇고, 끊고, 터뜨리고... '계산된 주루, 달라진 타격'

## KIA 박재현, '슈퍼 루키' 존재감 증명

### 도루 성공률 100%·득점권 4할 타율...욕심 대신 '연결' 집중 레그킥 줄이고 컨택 강화, "매 타석 무조건 살아나가고 싶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재현이 조금씩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숫자보다 과정이 선명하다.

그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타율 0.273, 장타율 0.364, 출루율 0.304다. 도루 3개를 모두 성공시켰고, 멀티히트도 3차례 기록했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수치와 역할 모두 지난해와는 분명 다르다.

2025시즌 58경기에서 타율 0.081에 그쳤던 그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 가능성만 남겼다. 올해는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

도루 성공률 100%. 단순한 발이 아니다. 계산된 주루다.

경기 전 상대 투수의 습관을 영상으로 반복 확인한다. 타이밍을 읽고, 기다렸다 실행한다.

지난 24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도 이를 보여줬다. 6회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로 출루한 뒤 희생번트로 2루를 밟았고, 이어 3루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타격도 달라졌다.

욕심을 털어내고 연결에 집중한다.

득점권 상황에서도 접근은 같다. 해결보다 연결이다. 그 결과 득점권 타율은 4할대다.

폼 역시 손났다. 레그킥을 줄이고 컨택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무조건 살아나가는 게 첫 번째 역할"이라는 판단이다.

지향점도 분명하다.

정수빈(두산)을 롤모델로 삼았다. 공을 정확히 맞춰 살아나가는 타자를 목표로 한다. 힘이 붙으면 장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이다.

그 결과는 경기에서 드러난다.

지난 11일 한화전에서 1-4로 뒤진 8회 선두타자로 나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이후 흐름이 바뀌며 팀은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28일 롯데전에선 1회 선두타자로 나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다. 연결 중심 타격 속에서도 장타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 장면이었다.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NC와의 원정 경기. 3-4로 뒤진 6회 1사 1,3루에서 외야플라이 상황, 홈으로 쇄도하던 3루 주자를 좌익수 보살로 잡아냈다.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수비였다.

공수주 전반에서 역할이 또렷해지고 있다.



공·수·주 강한 존재감으로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박재현.

<KIA 타이거즈 제공>

타순 욕심은 없다. 그가 생각하는 역할은 뚜렷하다. 팀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현재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9번 타자로서 연결고리 역할에 집중하고, 벤치의 희생번트 지시도 충실히 수행한다.

수비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를 오가며 경험을 쌓는 과정

이다. 시야는 중견수가 가장 편하지만, 최근에는 우익수 출전이 늘며 적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출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과제도 드러났다. 체력보다 집중력이다. 22경기 중 20경기에서 나서며 출전 비중이 크게 늘었고, 경기 중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가 있다. 주

장 나성범이다. 경기 운영과 타격 흐름, 컨디션 조절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재현의 반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꾸준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KIA가 필요로 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주홍철 기자

## 가린이 날, 챔필로 가면 즐거움이 쏟아진다

### KIA, 5월1-5일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가린이 날 시리즈 개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를 가린이 날 시리즈로 치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린이 날 시리즈를 SAMG 엔터의 대표 콘텐츠 IP인 '캐치! 티니핑'과 함께 준비해 어린이와 가족 팬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우선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포토존이 조성된다. 5번 출입구 앞 EV SPACE에는 '캐치! 티니핑'의 메인 캐릭터인 하츠픽 대형 에어벌룬과 티니핑 컬래버 에어벌룬이 설치된다. 중앙출입구 앞에는 포토존 현수막과 캐릭터 등산대가 놓여 인스타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장 주변은 자이언트 폼을 활용한 캐릭터 현수막을 설치해 챔필 곳곳에서 티니핑을 만나볼 수 있다. 포토카드도 티니핑 특별 디자인으로 인쇄되며, 역사관에서 가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즉석사진 포토부스도 운영한다.

가린이 날 시리즈를 맞아 특별한 승리 기념

시구 행사도 열린다. 1일 경기에는 하츠픽이 시구자로 나서며, 2일은 타이거즈 키즈클럽 회원이, 3일은 걸그룹 STAYC의 멤버 윤이 각각 시구를 한다.

5일 어린이날 경기는 영화 '슈가'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인 정소명 군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또한 선수단은 가린이 날 시리즈가 치러지는 4경기에 티니핑 컬래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캐치! 티니핑과 함께하는 이닝 교대 이벤트, 응원단의 프린스핑송 특별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챔필 곳곳에 숨겨진 족자를 찾는 이벤트인 '티니핑 보물찾기'도 진행해 보물을 찾은 가린이들에게는 선수단 사인이 새겨진 모자를 증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홈런을 친 선수가 직접 팬들에게 봉제 키링을 전달하고 티니핑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세리머니도 마련된다.

가린이를 위한 선물도 준비한다. 시리즈가



티니핑 유니폼 실착 이미지(양현종 선수 가족) <KIA 타이거즈 제공>

치러지는 4일간 관람객 전원에게 티니핑 젤리를 나눠주며, 5일 어린이 날 당일에는 어린이 팬 모두에게 티니핑 랜덤 피규어 키링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티니핑 도안 색칠 사생대회, 배이스 러닝, 챔필 투어 등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 광주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대회 성공 지원·대한민국스쿼시 발전기어

### 전갑수 회장, 대한스쿼시연맹 감사패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스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스쿼시연맹 감사패를 받았다.

전갑수 회장은 지난 27일 박세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을 비롯해 임효택·하호성·장현기·정창욱·이지훈 부회장과 전상완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스쿼시연맹 제4차 이사회에서 박세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취임 이후 광주 스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낸 전갑수 회장은 '광주시장배 전국 실업 스쿼시대회' 완성도를 높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스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취임 이후 광주 스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낸 전갑수 회장은 '광주시장배 전국 실업 스쿼시대회' 완성도를 높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스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박세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은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스쿼시 발전을 위해 보여준 애정과 헌신은 체육계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전갑수 회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쿼시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 스쿼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 팀 육성·대한민국바이애슬론 활성화 기여

### 송진호 회장,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감사패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바이애슬론 종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8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감사패를 받았다.

2023년부터 전남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3대 메이저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종목 기반 조성에 기여한 송진호 회장의 감사패 수상은 지난달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에 이어 올해 3번째이다.



송진호 회장은 "전남 도민과 체육인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3대 메이저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이번 감사패는 전남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 종목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이혁렬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 이사장)은 "송진호 회장이 전남의 동계기반시설 및 여건 불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 팀 육성·지원 등에 헌신의 열정을 다해 동계불모지 오명 해소에 앞장섬은 물론 대한민국의 바이애슬론종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2025년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선수단의 훈련지원 단장으로서 동계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여대, 대학농구 U-리그 값진 첫승 신고

### 울산대 107-70 완파

광주여대 농구부가 긴 침묵을 깨고 값진 승전고를 울렸다.

광주여대는 지난 28일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대학부에서 울산대를 107-70으로 완파하며 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2024년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예선에서 울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 2년 여만이다. 팀 득점 100점을 넘긴 것도 창단 이후 최다 득점이다.

폴코트 프레스를 가동한 광주여대는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흐름을 잡았다.

이후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득점을 이어가며 점수 차를 넓혔고, 후반 들어서도 찬스마다 터진 외곽포를 앞세워 3쿼터 초반 27점차까지 벌렸다.

주도권을 잡은 광주여대는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4쿼터 울산대의 추격을



광주여대 농구부가 U-리그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고 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광주여대 제공>

가볍게 따돌리며 승리를 만끽했다.

3점슛 9개 포함 35점 7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한 이서현(스포츠재활학과 1)이 팀 공격 선봉에 섰고 안호준(스포츠재활학과 1·27점 14리바운드)과 오현비(초등특수교육학과 2·15점 11어시스트)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신입생 6명이 합류하며 더욱 탄탄해진 팀워크로 재무장한 광주여대는 4

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태훈 광주여대 감독은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역할을 수행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이번 승리를 계기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경기에서도 준비한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